

‘스쿨 미투’ 교사들 복귀...학교는 ‘고민’

불기소 처분 교사들, 기간제 채용으로 복귀 어려워 법적 명에 벗어도 의혹 제기 학생들 대면 결끄러워

‘스쿨 미투’ 사건으로 교사들이 대거 수사를 받았던 학교가 예상치 못한 후유증을 겪게 됐다. 교사들이 직위 해제되자 학생 지도 공백을 막으려고 기간제 교사들을 대규모 채용했는데 상당수 교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아 복귀하면서 과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21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 모 고교에 따르면 스쿨 미투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던 학교 교사 17명 가운데 10명이 최근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해당 교사들은 직위 해제 사유가 해소돼 교단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학교 측은 기간제 교사 11명을 내년 2월까지 1년 계약으로 이미 채

용해 기존 교사들이 돌아갈 자리가 없어졌다. 충원하지 않았다가 생길 혼란을 고려하면 학교 측은 기간제 교사 채용을 성급했다고 지적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새로 채용된 교사 배정이 끝난 탓에 복귀한 교사들은 당분간 교단에 서기 어려워 보인다. 기간제 교사들에게는 계약 기간을 보장해야 하고, 법률적으로 명을 벗은 교사들을 교단 밖에서 방치할 수도 없는 학교 측은 고민에 빠졌다. 당장 3월 개학과 함께 출근할 교사들의

책상도 부족한 실정이다. 전수조사에서 가해 의혹을 제기한 학생들과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이 다시 대면하게 되는 것도 결끄러웠다. 학교 측은 해당 교사와 학생들의 대면을 최소화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수사는 끝났지만, 자체 징계 절차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교육청 감사 결과를 일단 기다려야 할 것 같다”며 “그 이후에는 재단 내 발령 등을 통해 최소한 2~3학년 학생과는 분리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sh9668@

‘친부살해 혐의’ 김신혜 재심 3월 열려

6일 첫 재판...비공개 진행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2)씨의 재심 첫 재판이 오는 3월 6일 열린다. 21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따르면 다음 달 6일 오후 4시 제1호 법정에서 김씨의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장도 변경될 예정이다. 김씨의 재심 재판은 지난해 10월 24일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김씨 측이 재판 관할 이전, 국민참여재판 등을 요청하면서 해를 넘겼다. 김씨가 장흥교도소로 이감되면서 재판부 이송 요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국민참여재판 요청 역시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2008년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가능한 만큼

2000년 공소 제기된 김씨의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0년 3월 아버지에게 수면제 가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왔다. 김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의 성추행 때문에 살해했다고 자백했으나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남동생이 용의선상에 올라 대신 자백했다. 아버지의 성추행도, 내가 아버지를 살해한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수사 과정의 부당함이 인정돼 복역 중인 무기수 중 처음으로 2015년 11월 재심 대상으로 인정받았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석방 상태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말 법원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윤규진 기자 jin2001@

병원 식당 취사도구 싸늘이 고물수집 70대 불구속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식판 등 병원 식당 취사도구를 훔친 혐의(절도)로 박모(7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4일 오전 4시께 광주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 보관 중인 식판 70개, 보온통 3개 등 115만원 상당의 취사도구를 자전거에 싣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고물을 수집하기 위해 돌아다니던 중 병원 주차장에 놓인 취사도구를 발견하고는 고물상에 되팔려고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측은 식당을 리모델링하느라 취사도구를 주차장에 잠시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가 자전거에 취사도구를 싣고 집으로 향하는 도주로를 역추적해 박씨를 붙잡고, 집에 보관 중인 취사도구를 회수했다. /김정관 기자 kissout@



도심 옥상에서 된장 만들어요 21일 오전 광주 북구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건물 옥상에서 주민협의체 회원들이 황칠을 재료로 된장을 담그고 있다. /연합뉴스

‘5·18망언 규탄’ 내일 서울서 범국민대회

5월 단체·광주 시민단체 등 1천500명 상경

이른바 ‘5·18 망언’을 규탄하기 위한 대규모 범국민대회가 주말인 2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다.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5·18시국회의와 공동으로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범국민대회는 1만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될 것으로 주최 측은 예상한다.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제명과 사퇴

를 촉구하고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등을 요구한다. 본행사가 끝나면 청계광장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광주에선 5월 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 단체, 정치, 노동, 여성계 등 1천500여명이 범국민대회에 함께 하기 위해 대거 상경한다. 5월 단체는 5·18기념재단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일반 시민 등은 광주시청 주차장에서 오전 8시 출발한다. 누구나 상경 집회에 참여할 수 있다. /차재정 기자 chaajung@

광주 사립유치원들 에듀파인 도입에 냉담

10.5%만 참여...의무 도입 대상 24곳 중 9곳만 신청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 도입되는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에 대해 광주 유치원 사이에서 냉담한 반응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에듀파인은 만능기가 아니다”며 “사립유치원에는 그에 맞는 회

계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부 지역에서 에듀파인 거부 움직임이 감지되는 가운데 광주 유치원들도 반발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광주지회는 “에듀파인은 수익이 발생하면 불법이고 손해가 생기면 설립자 개인 재산으로 메꾸라는 시스템”이라며 “손해

를 보전해주는 학교와 비교해 심각한 차별이자 사유재산 침해”라고 반발했다. 광주지회는 에듀파인 시스템을 적용할 전문 행정인력 배치를 지원하고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월별 입·퇴원 변동이 심해 원아 수가 수시로 변하는 만큼 예산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시스템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광주지회는 주장했다. /정승현 기자 jsh9668@

치료비, 식자재비 등은 선 품의 후 지출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고 건별 품의를 하려면 이 업무만 담당하는 상시 인력이 필요해 불합리하다는 불만도 표출했다. 이날 현재 광주 172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에듀파인 아이디 등록을 신청한 곳은 18곳(10.5%)에 그쳤다. 의무 도입 대상 유치원 24곳 중에는 9곳만 신청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유인책을 마련해 의무 도입 대상을 중심으로 최대한 많은 유치원이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sh9668@

곡성 농장주 살해 혐의 40대 범행 자백...구속 영장

곡성에서 실종된 50대 농장주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이 남성은 줄곧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고물을 취급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었으며 흥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곡성경찰서는 지난 20일 강도살인 혐의로 김모(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전 곡성군 모처에서 흥모(59)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

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흥씨는 지난 15일 낮 12시께 곡성군 소재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는 모습이 목격된 이후 연락이 두절돼 가족들이 다음 날인 16일 오전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흥씨 승용차와 비슷한 동선으로 이동하고 흥씨의 예금 1천200만원을 빼낸 것으로 확인된 김씨의 행방을 추적해 18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36분께 곡성의 한 저수지에서 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곡성=심선섭 기자 sss2634@

세계인의 밥상 이제부터 한식이입니다

세계적인 한류의 열풍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품격높은 한식문화의 조성과 우리음식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전남도민일보 한국언론진흥재단